

# 『康平傷寒論』 '表'에 대한 고찰 : 麻黃湯으로 호전된 양극성 장애 2례를 바탕으로

최운용<sup>1</sup> 이성준<sup>2</sup>)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07 성남한의원<sup>1</sup>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46길 5-6 압구정정인한의원<sup>2</sup>\*

## A Conceptual Study of “Pyo (表)” in *Gangpyeong-Shanghanlun* Based on Two Cases of Bipolar Disorder Improved with Mahwang-tang

Woon-yong Choi<sup>1</sup>, Sung-jun Lee<sup>2\*</sup>

207, Sanseong-daero,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sup>1</sup>  
 5-6, Apgujeong-ro 46-gil,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sup>2\*</sup>

**Objective :** We explored the meaning of “Pyo (表)” in *Gangpyeong-Shanghanlun* through two cases.

**Methods :** We analyzed the original form of 表 and its context in *Shanghanlun*. We also analyzed 2 clinical cases of bipolar disorder treated with Mahwang-tang (麻黃湯) according to the newly deduced definition of 表.

**Results :** 表 can be interpreted as “pursuing something high-class seen from the outside.” Both cases had various psychological symptoms including insomnia, mood swings, anxiety, and depression. We determined that the diseases in both cases occurred when 表 had not been achieved. We also found that 麻黃湯 can improve psychological status.

**Conclusions :** 表 is different from “surface,” which is the most widely used definition. After diagnosing these two patients with bipolar disorder using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sup>th</sup> edition), we found that symptoms could be improved by administration of 麻黃湯 (46條). Although its potential for neuropsychiatric diagnosis has been suggested through etymological interpretation of 表 and analysis of two cases, more advanced clinical studies are needed in the future.

**Key words :** 表, 麻黃湯, DSM-5, bipolar Disease, Mahwang-tang, *Shanghanlun*

\* Corresponding author : Sung-Jun Lee. 5-6, Apgujeong-ro 46-gil,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E-mail : baekpal@naver.com

· Received :2020/12/14 · Revised 2020/12/24 · Accepted :2020/12/31

## 서론

八綱은 한의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陰陽, 表裏, 寒熱, 虛實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각각이 대립적인 용어로서 사용되며, 연속적인 인체의 증상들을 간편하게 이원화함으로써 의학적 사고의 편의성을 제공해왔다<sup>1)</sup>. 따라서 한의학의 기본적인 변증 체계로서 사용되어 왔는데,<sup>2)</sup> 그중에서도 表는 裏와 대비되어 보편적으로 사용해왔던 용어로서, 주로 증후의 부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sup>3)</sup>. 邪氣가 表에 있으면 表病으로, 裏에 있으면 裏病으로 인식해왔는데, 일반적으로는 表病이 裏病보다는 病의 상태가 가볍고, 예후가 좋다고 인식되고 있다<sup>4)</sup>.

表의 의미는 여러 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한의학 대사전』<sup>5)</sup>에 따르면 한의학에서 表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裏에 상대되는 말로써 몸의 겉 부위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한의학의 生理와 病理에서 『黃帝內經』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여기에서 表裏는 病位와 病因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사용되었으며, 여러 한의학 분야에서 이견 없이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傷寒論』 康平本の 15字行은 14, 13字行과는 다르게 독립적인 텍스트로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sup>6)</sup>, 『傷寒論』 康平本の 15字行은 『黃帝內經』과는 별개의 의학 연구 체계로서 이해해야 한다<sup>7)</sup>. 그러므로 한의학 전반에서 매우 빈용되는 表라는 글자가 『傷寒論』 15字行에서는 6,700여 개의 글자 사용 중 嵌注, 旁注를 제외하고

고작 1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해볼 만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表에 관한 기존의 정의와 연구들을 살펴보고, 表의 어원에 대한 고대 중국 한어로서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傷寒論』 15字行에서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麻黃湯을 처방하여 호전된 증례를 분석한 결과 『傷寒論』에서 表의 의미는 裏와 대비되어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로서 해석될 가능성을 확인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연구 방법

### 1. 문헌 연구

한의학 용어에 대한 여러 사전을 참고하여 表의 의미를 조사하고, 『한자 어원사전』에서의 表의 의미를 조사하였다. 또한, 表가 포함된 『傷寒論』 조문들과 處方에 대한 선행 연구 논문을 고찰하였다.

### 2. 『傷寒論』 판본의 선정

본 연구에서 기준으로 삼은 텍스트는 『傷寒論』의 여러 판본 중 『康平傷寒論』이다. 『康平傷寒論』은 宋代 교정의서국의 교정이 있기 전의 판본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시대에 따른 조문의 참입 순서를 알 수 있는 15, 14, 13字行, 嵌注, 旁注 등의 층차로 나뉘어 있어 『傷寒論』 본연의 모습을 연구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14, 13字行과는 달리 15字行은 『黃帝內經』의 이론과는

관련 없는 독립적인 의학 체계를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康平傷寒論』 15字行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다.

### 3. 임상 연구

#### 1) 연구 대상

2021년 압구정 정인 한의원에 방문하여 『康平傷寒論』 46條로 진단받고, 麻黃湯을 투약하여 호전된 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증례에 사용된 임상 연구들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중심으로 기술되었고, 저자의 '연구윤리서약서'와 환자의 '연구자료 활용 동의서' 등 서면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 2) 연구 방법

##### (1) 진단

이 등<sup>8)</sup>에 의해 제안된 『傷寒論』 辨病診斷體系를 바탕으로 진단하였다. 환자와의 병력청취를 통해 병을 유발한 핵심 원인에 대해 진단하였고, 이를 가장 적절한 『傷寒論』의 七病-提綱-條文의 순서로 연결 지었다.

##### (2) 처치

『傷寒論比較』<sup>9)</sup>에 기재된 용량에 따라 1일 2회, 1회 120cc를 복용하도록 하였다 (Tab. 1).

##### (3) 평가 방법

치료 전과 중간 그리고 치료 후 환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주소증과 제반 사항의 호전 정도를 평가하였다.

**Table 1.** The Weight of Mahwang-tang Compositions

Herbal Name	Scientific Name	Daily Use (g)
麻黃	<i>Ephedra sinica</i> Stapf	9
杏仁	<i>Prunus armeniaca</i> Linné	9
桂枝	<i>Cinnamomum cassia</i> Blume	6
甘草	<i>Glycyrrhiza uralensis</i> Fischer	4

The aqueous extracts from the herbs above were perorally administered two times a day, by 120 cc volume.

## 본 론

### 1. 表의 기존 용례에 대한 분석

#### 1) '表'의 사전적 정의

『한의학 대사전』<sup>5)</sup>에 따르면 '表'의 의미는

(1) 八綱의 하나로서, 몸의 겉 부위를 말한다. 裏에 상대되는 말로서, 皮毛, 腠理, 살갓의 문리, 겉에 있는 경락 등이 표에 속함

(2) 表證의 준말로도 쓰임으로 정의되어 있다.

『한의학사전』<sup>10)</sup>에는 表裏를 '질병의 內外, 병세의 深淺 및 병세의 輕重 등을 판별하는 두 개의 강령'이라고 정의하면서 表에 대하여

(1) 인체의 皮毛와 經絡이 表에 속함

(2) 邪氣가 衛分에 있어서 병세가 비교적 가볍고 얕은 상태는 表에 속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漢韓大字典』<sup>11)</sup>에는 表에 대하여 12개

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 (1) 겹표: 거죽, 겹면, 밖(外), 위(上)
- (2) 나타낼표: 표창함, 명백히 함, 표시함
- (3) 모습표: 용모, 태도
- (4) 뛰어난표: 특이한 모양, 빼난 모양

이상의 4가지 정도가 구별될만하게 정의되고 있었고, 表의 字源에 대하여, 衣와 毛의 결합인 會意 문자이며, 옛날에는 털(毛)로 옷을 만들었으므로, 上衣의 뜻을 나타내거나 겹으로 드러낸다는 뜻을 갖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2) ‘表’ 관련 방제들에 대한 임상 연구 논

문 내의 개념 변천 분석

表는 병의 위치와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로써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의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연구는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康平傷寒論』 15字行에서 表가 사용되는 조문의 처방들(Tab. 2)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색하여 表와 관련된 연구를 검색하고자 하였다. 국내 문헌들을 검색하였으며, KISS(<https://kiss.kstudy.com>), RISS(<http://www.riss.kr>), OASIS(<https://oasis.kiom.re.kr/>)를 이용하였다.

**Table 2.** The Herbal Medicines in the 表 Provisions in 『Gangpyeong-Shanghanlun』

Chapter	Provision Number	Herbal Medicines	Provisions
「辨大陽病」	40	小青龍湯	傷寒表不解心下水氣
	43	桂枝加厚朴杏子湯	表未解故也
	46	麻黃湯	表證仍在
	61	乾姜附子湯	無表證
	91	回逆湯, 桂枝湯	救表救裏, 救表
	124	抵當湯	六七日表證仍在
「辨大陽病結胸」	134	大陷胸湯	表未解也
	163	桂枝人參湯	表裏不解者
	168	白虎加人參湯	表裏俱熱
	170	白虎加人參湯	無表證者

(1) 소청룡탕

소청룡탕은 알러지비염, 천식, 감기 등 기관지 증상에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처방인데, 민<sup>12)</sup> 등의 연구에서는 소청룡탕과 관련된 문헌고찰이 이루어졌지만, 條文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表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가 없었고, 이<sup>13)</sup>, 황<sup>14)</sup>, 황<sup>15)</sup> 등 또한, 條文에 기반한 연구가 아니라 證治 연구였기 때문에 表에 대하여는 언급되지 않았다. 강<sup>16)</sup>은 汗 痲疹 피부 증례를 처음으로 보고하였는데,

여기서는 表證을 습진과 수포를 동반한 피부 병으로 인식하였고, 이후 배<sup>17)</sup> 등도 表를 피부질환과 연관된 문제라고 해석하였다. 이<sup>18)</sup> 등은 汗疱疹 관련 증례 보고에서 처음으로 表에 대한 어원학적 해석과 이를 진단적 의미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는데, 表를 大篆의 모양에 따라 破字하여 衣, 皮, 刀로 구성되어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사람 피부의 이상 부위를 칼로 도려내야 하는 상황’으로 表의 의미를 제안하였다. 서<sup>19)</sup> 등은 耳鳴과 관련한 증례 보고를 하였는데, 表不解에 대하여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다가 그것을 더이상 추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제안하였다.

#### (2) 계지가후박행자탕

본 처방에 대해서는 검색된 증례 논문이 없었다.

#### (3) 마황탕

麻黃湯과 관련된 연구로는 고<sup>20)</sup> 등, 윤<sup>21)</sup>, 김<sup>22)</sup> 등의 연구가 있었으나, 表에 대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윤<sup>23)</sup> 등의 연구에서는 表에 대하여 ‘피부증상’으로 해석하였고, 서<sup>24)</sup> 등의 연구에서는 ‘일을 더 잘 하려는 욕심’으로 해석하여 본 논문의 논지에 부합하는 면이 있었다.

#### (4) 건강부자탕

김<sup>25)</sup> 등의 연구가 있었으나, 表와 관련된 조문 연구는 없었다.

#### (5) 회역탕, 계지탕

表가 등장하는 92條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 (6) 저당탕

조<sup>26)</sup> 등은 124條에 기록된 表에 대하여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다가 병이 발생하는 과정’으로 가설을 제안하였다.

#### (7) 대함홍탕

본 처방에 대해서는 검색된 증례 논문이 없었다.

#### (8) 계지인삼탕

본 처방에 대해서는 검색된 증례 논문이 없었다.

#### (9) 백호가인삼탕

조<sup>27)</sup>는 ‘업무에 지장 받아 스트레스 받는 것’을 表의 의미로써 사용하였다. 박<sup>28)</sup> 등의 피부질환 증례보고가 있었으나, 조문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3) 분석

表는 八綱辨證의 하나로서, 각 시대 醫家들은 이를 중요하게 사용하였다. 대표적으로 明, 淸代의 장개빈은 외부 기운이 신체로 들어와 발생하는 증후들을 表證이라고 하여 病因적인 시각으로 파악하였고, 정국평과 강함돈 등은 表에 해당하는 증상들을 열거하면서 증후의 감별을 세밀화하였다<sup>29)</sup>. 八綱辨證에 대한 통시적 고찰연구<sup>30)</sup>에서도 表의 의미는 病因, 病位 그리고 증상의 輕重을 의미하는 단어로써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

다.

表는 상술한 정의들로 보았을 때, 그 의미의 방향성이 ‘겉’과 ‘바깥’인 것은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어진 선행연구 검색에서, 表는 기존의 ‘邪氣의 위치’, ‘병의 輕重’ 등의 형이상학적 용어에서 나아가 ‘피부질 환’이라는 실질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sup>16)17)</sup>가 있었으며, 기존 사전적 정의와 일치하는 용례로 판단된다.

그러나, 서<sup>19)24)</sup>와 조<sup>26)27)</sup>의 연구를 통해 고문자학적 해석의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여기에서부터 表는 사회적 용어로도 사용되었는데, 직업적인 부분이나 이를 통한 사회적 성공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 확장되어 사용되었다.

## 2. 『康平傷寒論』의 ‘表’에 대한 분석

### 1) 『康平傷寒論』 15字行에서의 분석

『康平傷寒論』 15字行에서 嵌注, 旁注를 제외하고 表는 처방이 포함된 10개의 條文中에서만 등장하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모두 太陽病에서만 등장한다는 점이다(Tab. 2).

또 하나의 특징은 表가 몇 가지 글자들과 결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不, 未, 解, 證, 救, 裏, 無, 熱 등의 글자와 주로 사용이 된다.

### 2) 어원에 따른 분석

表의 자형은 갑골문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簡牘文, 『說文解字』의 小篆 그리고 大篆 등의 형태가 밝혀져 있다.

表는 衣(옷 의)와 毛(털 모)로 구성되어 있고, 『한자어원사전』에 따르면, 옛날에는

가죽옷을 입을 때 털 있는 부위를 밖으로 나오게 입었는데, 이로부터 ‘바깥’, ‘드러내다’의 뜻이 나왔다고 한다<sup>31)</sup>. 이 글자들의 관계는 고문자들의 자형을 보면 더욱 이해가 쉬운데, 衣의 위, 아래를 분리하고 毛가 그사이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Tab. 3). 이러한 형태는 시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으나, 예외적으로 表의 小篆 중 다소 복잡한 襠(겉표)의 형태가 있다. 큰 사슴을 의미하는 麋(큰 사슴 포)가 소리부이고, 衣가 의미부인 글자인데<sup>31)</sup>, ‘큰 사슴의 가죽을 옷으로 입은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襠를 破字하여 衣, 皮, 刀의 조합으로 해석한 후, 피부에 칼을 대는 모습으로 表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 연구가 있었으나<sup>18)</sup>, 이미 麋에 대한 大篆과 小篆의 형태가 존재하고, 衣와 麋를 조합했을 때 襠의 모습과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이는 다소 무리한 주장이다.

따라서 表의 의미는 ‘털 옷을 입은 모습’, 좀 더 자세히는 ‘털 부위를 바깥으로 보이게 입은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질병의 원인으로서 상정되기 위해서는 병적인 개념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좋은 옷을 입고 이를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로서 해석하여 임상적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表는 不, 未, 解, 證, 救, 裏, 無, 熱의 글자와 붙어서 사용되는데,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 아직 충족이 안 되었거나(未解)”, 혹은 “그 의욕을 잃어 체념 상태에 있거나(不解)”, “이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證)”, 혹은 “과도하게 열내고 힘쓰면서 노력하는 모습(熱)” 등 같이 사용하는 용어











들과도 해석이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제안되었던 表의 의미와도 유사한데<sup>24,26,27)</sup>, 기존 연구가 일, 직업적인 부분에 그 의미를 국한하였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의미는 직업 외에도 외부에 과시할만한 것들, 예를 들어 돈, 지위, 외모, 평판 등도 포함되는 것이라 외연이 더욱 넓어진다. 즉, 表는 타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한 조건들은 모두 해당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에서 욕

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자존감의 하락과 좌절감을 겪으면서 병이 발생할 수 있다.

### 3) '表'의 의미

『康平傷寒論』의 表는 병리적 용어로서,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인해 자존감이 상실되어 병이 나타나는 상태'로 제안하고자 한다.

**Table 3.** The Ancient Characters of 衣, 毛, 表, 麋, 襪<sup>12)</sup>

	甲骨文(Oracle)	大篆(Bronze)	小篆(Seal)	Meaning
衣				Clothes
毛	-			Hairs
表	-			Fur clothes
麋	-			a giant deer
襪	-			Fur clothes made with a giant deer

**Table 4.** An Overview of the Two Cases

	Case 1	Case 2
Height (cm)	174	163
Weight (kg)	59	49
Age	21	32
Sex	Male	Female
Job	Student	Nurse
Chief Complaint	Sleep Disorder - Insomnia	Depersonalization
Present Illness	He had problems with friends in school since 8 years ago and was diagnosed with bipolar disorder, depressive disorder and panic disorder 4 years ago. He also expressed delusions, so was medicated with Quetiapine which is used for schizophrenia but he didn't take it much.	She didn't want to born and raise a child but, her husband made her to do. She had been expressing anger during raising her child so, made many troubles with her husband. She was diagnosed with anxiety disorder an year ago and medicated with the drugs but didn't take them much.
Onset	8 years ago	1 years ago
Sympto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alling asleep at 5am and waking up 12pm</li> <li>• Having tiredness during the day</li> <li>• Panic disorder symptoms(palpitation, cold sweat, stiffened) in crowded places</li> <li>• Multiple suicide impulse, fear of death</li> <li>• Dropped out of school at the age of 1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o sense of reality. Feeling like dreaming</li> <li>• Too bright and blurry vision in the sunlight</li> <li>• Expressing anger while raising a child alone</li> <li>• Going to E.R. after arguing with the husband</li> <li>• Having fights with her sister frequently</li> <li>• Vomiting many times when angry</li> </ul>
Medication Period	Treated with Mahwang-tang for 60 days	
Progr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ppetite and digestion have improved a lot</li> <li>• Gained weight</li> <li>• Being able to sleep enough and having confidence in sleep</li> <li>• Excessive anger has relieved</li> <li>• Chest stuffiness has relieved</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gestion has improved a lot</li> <li>• Being able to control anger</li> <li>• Breathing became smooth and easy</li> <li>• Severe fatigue during the day disappeared</li> <li>• Glare has relieved</li> </ul>



**Table 5.** The Narratives of the Two Cases about 表

	Case 1	Case 2
Narrative of 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patient was a captain among friends in the middle school. But, after fighting with a friend, the patient had been bullied.</li> <li>- As a result, the patient dropped out. However, he went back to school some days later and forced the friend to apologize. The patient made the friend kneel.</li> <li>- The patient lost his face and status in the school after fighting. It made him very angry and happened to make a big proble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patient was originally more interested in work and financial techniques to earn than in childcare.</li> <li>- So the husband promised to raise the child after childbirth and the patient to keep working but, the promise was not kept.</li> <li>- The desire to make money was stronger than to raise children, but this was not satisfied. So, the patient had threw up several times while arguing with the husband and was taken to the emergency room a few times.</li> </ul>

### 3. 『康平傷寒論』 '表'의 의미를 적용한 환자 증례 보고

본 연구에서는 2명의 환자에게 表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辨病診斷體系를 활용하여 진단하였고, 두 환자에게서 모두 表의 내러티브<sup>32)</sup>가 관찰되었다. 환자들은 모두 『辨大陽病』 46條 로 진단하였으며, 유의미한 반응을 끌어낼 수 있었다.

#### 1) 주요 신경정신과적 증상들과 表와의 연관성 분석

두 증례의 인구학적 정보와 주증상, 중재, 경과는 다음과 같다(Tab. 4). 두 증례 모두 신경정신과적 증상을 갖고 있었으며, 통제하기 힘든 분노들과 관련된 삽화들을 과거력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증례 1]의 경우 불면증과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를 호소하고 있었는데, 새벽 3-4시

에 잠자리에 들지만, 실제 잠드는 것은 5-6시 경이라고 하며, 낮 12시에 기상하는 수면 패턴을 갖고 있었다. 실제 잠자리에 있는 시간은 8-9시간으로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으나, 낮 시간대의 피로감과 무기력한 느낌을 호소하였다.

환자는 중학생 때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대장 역할을 하였다고 했으나,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교우 간의 갈등으로 인해 따돌림을 당하게 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였는데, 이후 복수심에 해당 학생을 학교에 찾아가 사과를 강요하면서 해당 학생을 무릎 꿇리게 만드는 등 소동을 부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후 우울증에 따른 자살 충동이 지속해서 발생하였고, 이는 내원 당시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다.

공황장애도 갖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증상이 있었고,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경직이 되며, 집에 오면 몸살과 같은 근육통이 생긴다고 하였다. 동시에心悸와 식은땀, 손발 저림, 비현실감 등을 겪었다고 하였는데, 그래도 현재는 초, 중학교 때보다는 나아진 상태라고 하였다. 정신과에서 조울증 진단을 받고, Quetiapine이라는 Dibenzothiazepine 계열의 조현병 치료제를 처방받았으나, 환자가 복약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복약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증례 2]의 경우 이인증과 우울감, 불안장애, 소화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비현실감을 호소하며, 집중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해가 있는 야외에서 시야가 흐려지고 눈이 부시는 증상도 같이 호소하였다.

환자는 내원하기 4년 전에 출산하고, 이후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으며, 남편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오고 있었다. 환자는 본디 육아보다는 일하는 게 더 중요함을 남편에게 이야기해왔고, 출산 후에도 본인은 계속 일을 하고 육아는 남편이 하겠다는 약속을 남편에게 받았으나, 출산 이후 본인만 육아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직업적 관심 외에도 부동산 투자 등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집 안에서 육아를 하기보다는 바깥에서 돈을 버는 일에 관심이 많은 성향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부부 간 갈등이 계속되었으며, 심한 경우 화를 이기지 못해 구토를 한 경우도 많았고, 응급실에 실려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우울감을 호소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간호사로서 일에 다시 복귀하고 싶어하였다. 그러나 과거에 일을 하면서 매우 자존심이 상했던 기억 때문에 다

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으며, 불안장애로 진단받아 미상의 양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증례 1]과 [증례 2]에서는 공통적으로 과도한 분노를 표출했던 과거력이 관찰된다. 그리고 그러한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원인은 [증례 1]의 경우 본인이 대장 노릇을 하다가 갑자기 왕따를 당하게 되면서 학교에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체면이 손상당하게 되었던 사건이었고, [증례 2]의 경우는 본인이 가치를 두던 일과 재테크를 욕아 때문에 못하게 되면서부터였다. 이는 공통적으로 밖으로 보여지는 나의 체면이나 지위, 그리고 직업과 돈에 대한 욕구가 손상되면서 발생하는데 이는 위에 상술했던 表의 고문자학적 해석을 통한 임상적 의미 제안 내용과 부합한다 (Tab. 5).

## 2) 주요 치료 경과

두 증례 모두 麻黃湯을 복용한 후, 주소증 및 신체 제반 사항들이 모두 호전되었다. 두 증례 모두 麻黃湯을 복용하면서, 마황에 포함되어 있는 Ephedrine 등의 성분으로 인한 교감신경 항진 작용으로 인해 체중이 감소될 것을 주의하였으나,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였고, 심리적 안정을 점차 찾아가게 되었다. 과도한 흥분을 하여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麻黃湯은 숨을 들릴 수 있게 해주는 처방이라고 환자에게 안내하였으며, 유산소 운동을 지시하였고, 환자들은 복약하면서 숨이 훨씬 잘 쉬어진다고 이야기하였다. [증례 1]의 경우 한약 복용 초기 조현병

치료제인 Quetiapine을 바로 중단하였고, 麻黃湯 복용 2주 만에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5주 차에는 수면과 관련된 문제는 소실되었다. [증례 2]의 경우 麻黃湯 복용 후 오후에 갑작스럽게 몰려드는 피로가 소실되면서 분노 조절과 우울감에 더욱 도움이 되었고, 복용 2개월 후에는 남편과 거의 다투지 않게 되었다. 두 증례의 환자들은 麻黃湯을 처방하기에 망설여질 정도로 마른 상태였고, 입맛도 없었으며 소화도 잘 안 되는 상태였는데, 麻黃湯 복용 후, 입맛과 소화가 모두 호전되면서 체중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과를 보여주었다. 공통적으로 호소하던 눈부심의 문제도 모두 해결되었는데, 이는 환자들의 과도한 흥분으로 인한 동공산대가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 3) 『康平傷寒論』 46條와의 연관성 분석

[증례 1]은 과도한 행동(大)이 문제가 되므로 大陽病으로 진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었고, 실제로 환자도 현재 갖고 있는 우울감의 이전에 과한 분노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麻黃湯 46條(Tab. 6)의 ‘發煩’에 해당한다. 즉, 평소 담겨있던 분노(煩)가 응축되다가 일시에 폭발(發)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때의 과도한 흥분을 제어하기 어려웠다. 또한, 타의에 의해 분노가 발생 됨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46條의 ‘其人發煩’에 해당한다. 즉, 나의 의지가 아닌 타인에게 끌려다니게 되어 분노가 폭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반드시 상대방과 싸우게 되고 문제를 키우게 되는데, 이는 조문에 ‘劇者必鬪’로서 ‘피를 보게 된다’라는 은유적 표현으로서 기재되어 있다. 환자는 문제 상황 이후, 주로 집에 있으면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어딘지 모르게 몸에서 자꾸 열이 생긴다고 하였고, 이는 ‘無汗發熱’에 해당한다. 또한, 밝은 낮이나 눈부신 상황에서 공황장애가 발생하였는데, 빛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조문에 ‘目瞑’으로 표현된다. 밤에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8시간 이상 되지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여 낮에 피로와 가슴 답답함, 우울감을 호소하는 부분은 ‘陽氣重’에 해당한다.

[증례 2]는 여동생, 남편과 과도하게 싸우고 응급실까지 가게 되는 모습에서 큰 움직임(大)과 發煩, 劇者必鬪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인감으로 대표되는 꿈을 꾸는 듯한 느낌, 비현실감, 시야흐림과 눈부심 등의 현상은 시야의 장애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目瞑’설명이 되고, 이 환자 또한 [증례1]처럼 낮에 생기는 무기력함과 쉽게 지치는 현상, 우울감 등은 ‘陽氣重’으로 설명이 된다.

**Table 6.** The Provision of 麻黃湯 in 『Shanghanlun』 and Its Meaning

The Provision of 麻黃湯		
46. 大陽病, 脉浮緊, 無汗發熱, 身疼痛, 八九日不解, 表證仍在, 其人發煩, 目瞑, 劇者必衄, 所以然者, 陽氣重故也, 麻黃湯主之.		
The Major Expressions in the Provision	Related Patient Information	
	Case 1	Case 2
<b>Disease developed while active excessively</b>		
大陽病	Expression of excessive anger	Expression of excessive anger
	Dropping out of school	Going to E.R. frequently
<b>Pursuing the visible part and projecting self-esteem</b>		
表證仍在	Table 5.	Table 5.
	<b>Anger explodes as it becomes impossible to achieve 表 by other wills</b>	
其人發煩	He was bullied at school, and out of revenge, he forced his friend to apologize	Bursting her anger to her husband because he didn't help with childcare as promised
	Throwing plates to his brother	Fighting with her sister fiercely
	<b>Vision becomes sensitive to lights</b>	
目瞑	Having too bright vision so, prefer a dark place	Blurry, bright vision Feeling like dreaming
	<b>When gets angry, always fights and makes things bigger</b>	
劇者必衄	After forcing the friend apologize him, the school violence committee was held with police officers. He was dropped out of school at the end.	Going to E.R. after arguing with her husband. Made some troubles in the work place earlier
	<b>Fatigue during the day and feeling stuffiness in chest</b>	
陽氣重	Feeling depression and tiredness in the day even if he had slept for 8-9 hours	Having difficulty in raising her child in the day due to exhaustion so, she had to take a nap

## 고찰

八綱은 한의학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는데<sup>33)</sup>, 『黃帝內經』에도 이러한 분류들이 기초적으로 등장하며<sup>34)</sup>, 『傷寒論』에도 각각의 글자들이 모두 등장

하나, 그 편리함과 중요도에 비하여 『康平傷寒論』 15字行에서 자주 사용되지는 않았다. 서<sup>35)</sup>, 김<sup>36)</sup>등이 이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나, 表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은 부족하였다. 또한, 역사적으로 表裏는 대립적 관계로 病邪의 위치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

는데<sup>37,38</sup>), 이러한 기초적인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康平傷寒論』 15字行에는 表裏가 같이 사용되는 용례가 91, 163, 168條의 3차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의 表의 의미가 『康平傷寒論』에서도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康平傷寒論』 15字行에서 表의 의미에 관해 탐구하게 되었다.

우리는 글자의 어원에 중점을 두고 의미를 고찰하였는데, 한자의 형태는 고대로 갈수록 그 원형의 형태에 가까워지고, 一字一意的 특성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表가 어떤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破字하여 그 형태와 의미를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고대 문헌들을 연구할 때,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다<sup>39</sup>). 또한, 한자의 모양과 뜻 그대로 직관적으로 이해한 이후에는 『傷寒論』 서적의 특성을 고려하여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表는 衣(옷 의)와 毛(털 모)의 조합인데, 이는 ‘털이 달린 옷’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겉’이라는 의미가 나온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글자 그대로 ‘털이 달린 옷’으로서 이를 해석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어떤 동물의 가죽을 옷으로 입느냐’는 계급의 차이나 역할의 차이를 규정하기에 쉬운 방법이었을 것이다. 크고, 강한 동물의, 구하기 어려운 가죽을 옷으로 입고 있는 자는 당연히 해당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表는 이러한 외적인 지위나 힘,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表의 대상은 돈, 직업, 외모,

인기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적절하게 추구하는 것은 건강한 욕구로서 볼 수 있다. 表가 질병의 성립요건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表의 대상들을 강하게 추구하면서, 본인의 자존감을 表의 대상에 투영하지만, 그것이 성취되지 못하거나 훼손당할 때이다. 즉, 자존감 상실의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인데, 이러한 자존감의 의미는 表를 구성하는 글자 중 하나인 衣(옷 의)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옷에 따라 의미하는 직업이나 기능이 있다는 데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옷(表)을 입고 싶으나 이를 입지 못하였을 때, 혹은 입고 있었으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입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병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된다.

[증례1]은 본디 친구들 사이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다가 친구와 다툰 후 학교에서의 본인의 지위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를 견디기 힘들어 고등학교 자퇴까지 하게 되었다. 이는 본인이 입고 있던 높은 지위의 옷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낮은 지위의 옷으로 입게 되면서 병이 생긴 것으로 表에 대한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환자의 병력을 보았을 때, 분노의 표출이 눈에 띄는데,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한 후 자신을 따돌린 친구에게 4년간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고등학교 자퇴 후 실제로 학교를 찾아가 강제로 무릎을 꿇리게 하고 사과를 강요하는 다소 과도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집안에서도 남동생과 자주 다투고 한번 싸우게 되면 집안의 집기들이 난리가 난

다고 하였다.

[증례2]는 본인이 원치 않는 육아를 과도하게 떠안게 되면서 병이 시작되었는데, 본래 자신이 관심이 있었던 돈 버는 일을 못하게 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이는 表의 대상인 돈과 직업을 타의에 의해 추구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 경우였다. 문제는 주로 분노로서 표현되었는데, 남편과 과하게 다투다가 응급실까지 실려가고, 자주 토하는 등의 모습들, 그리고 친언니와 매우 험하게 싸운다고 하는 증언으로 볼 때, 본 증례도 환자의 과도한 흥분과 분노가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호소하던 불안감도 과거 직장에서 자존심이 심하게 상했던 기억 때문에 복직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도 직장에서의 자신의 체면과 지위의 손상에 의한 것이므로 表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sup>40)</sup> 등은 麻黃湯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麻黃湯 46條의 其人發煩과 陽氣重을 근거로 신경정신과적 사용에 대한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東醫寶鑑』의 [氣門]에 신경정신과적 질환들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만성 C형 간염 치료의 보조제로 麻黃湯이 사용되어 환자들의 우울감이나 불쾌감, 불안감을 개선해주는 항우울효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인데, 본 연구에 사용된 두 개의 증례 또한 신경정신과적 주소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증례1]은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증례2]는 이인증과 불안장애, 우울감 등을 갖고 내원하였는데, 두 증례에서 도드라지는 부분은 위의 병들보다는 과도한 흥분에

의한 분노이다. 이러한 감성의 문제는 DSM-5에서 ‘기분장애’의 ‘양극성장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sup>41)</sup>, 이는 조울증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조증이나 경조증 삽화를 겪은 적 없는 주요우울삽화만을 경험한 환자들을 우울장애 즉, 우울증으로 진단하는데, 위 두 증례의 환자들은 적어도 경조증 삽화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두 증례는 우울증으로 진단될 수가 없다.

경조증 삽화의 특징은, 조증 삽화처럼 고양되고, 과민하며, 혹은 때로 짜증만 보이는 기분을 느끼고, 자만심을 보이기도 하며, 말이 많아지고, 수면욕이 저하되는 현상을 보여주나, 그 지속 기간이나 정도가 심하지 않다. 반면, 조증 삽화는 이러한 특징들의 지속 기간이 길고, 정도가 심하여 사회적, 직업적 손상이 초래될 수 있는데, 심하면 입원이 필요하기도 하다.

[증례1]의 경우 자퇴를 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손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조현병으로 진단될 만큼 과하게 자존감이 고양된 모습, 웅대한 모습 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조증삽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살 충동과 불면증, 우울감으로 인해 우울증으로 진단될 만큼 주요우울삽화를 경험하였으므로 ‘제1형 양극성 장애’로 진단될 수 있다.

[증례2]의 경우 기분의 높낮이가 심하며, 과도한 분노 후 찾아오는 우울감을 호소하였다. 환자의 과도한 흥분이 직업적, 사회적 손상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지만, 엄마로서의 육아활동보다는 경제활동에 계속 관심을 표명하면서 과도한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볼 때, 경조증 삽화라고 볼 수 있다. 이후에

찾아오는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 복직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므로, 주요우울삽화도 확인이 된다. 따라서 '제2형 양극성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 [증례1] 보다는 병력과 양상이 다소 가벼운 편이고, 불안감을 호소하는 면에서 양극성 장애 중 '순환성장애'로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단순히 Mood swing 정도의 병력은 아니기 때문에 배제하였다.

양극성 장애 환자와 조문의 연관성은 表證仍在와 其人發煩, 陽氣重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Tab. 6). 表證에서 表를 추구하면서 점차 흥분하는 모습(證)인 조증, 경조증 삽화를 확인할 수 있다. 證은 言(말씀 언)과 瞪(오를 등)의 조합으로서, 表에 관하여 말이 점차 많아지고, 고양되는 모습을 표현한다. 그러나 타인에 의하여 그것이 방해받고, 表를 성취하지 못해 과도하게 화를 폭발시키는 모습은 其人發煩의 모습이다. 이로 인해 한낮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무거워 表를 추구하기 힘든 상황은 陽氣重의 모습인데, 이것이 주요우울삽화 혹은 그에 준하는 우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麻黃湯 46條의 조문은 '양극성 장애'를 다스리는 조문으로 이해해볼 수 있는데, 이는 이<sup>40)</sup> 등이 제안한 것처럼 麻黃湯의 정신과적 적용의 예이며, 『傷寒論』 적용의 범위가 이로 인해 더욱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증례 보고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어원과 증례를 바탕으로 表의 의미를 탐구하였고, 그 적용을 통해 기존의 의미보다 새롭고 확장된 가설을 제안할 수 있었다. 또한, DSM-5를 통해 두 증례는 '양

극성 장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통해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접점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傷寒論』의 글자들을 분석하면서 참고한 서지학적 지식이나 저작 시대의 한자 사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다양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둘째, 表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검색 범위가 사전과 국내로서 그 범위가 다소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表에 대한 가설을 일반화시키기에 이를 뒷받침하는 증례의 수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 결론

『康平傷寒論』 15字行의 表의 의미를 어원학적으로 분석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麻黃湯을 투여하여 호전된 2개 증례 환자들의 병력 및 주소증, 투여 경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1. 『康平傷寒論』 15字行에서 사용된 表는 '밖으로 보이는 돈, 직업, 지위, 외모 등을 추구하며 이에 자존감을 투영하는 것'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성취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한 병적인 상태로 분석할 수 있다.
2. 이를 바탕으로 수면 장애, 기분 난조,

불안, 우울감, 분노 등을 호소하는 2명의 환자들에게 『傷寒論』 辨病診斷體系를 운용하여 麻黃湯을 처방한 2례에서는 호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양극성 장애 환자들의 진단에 있어서 『傷寒論』 46條 적용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

1. Moon ST, Shin YH, Gu BS. The Psychiatric Study of the Sang-Han-Lon.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00 ; 11(1) : 131-43.
2. Kang CM, Kang JS, Kim BS. Analysis of Differential Diagnosis System in Sasang Typology on the Basis of Greater-Lesser-Yin-Yang and Eight Principle Pattern Identification.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8 ; 22(5) : 1125-31.
3. Kim JW, Jeon SH, Lee IS, Chi GY, Kang CW.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Yin-Yang, Exterior-Interior in Eight Principle Pattern Identification and the Sasang Constitution - 500 Women with Menstrual Pain and Women Without Menstrual Pain as a Target. 2020 ; 34(6) : 362-371.
4. Park YB, Kim TH. Korean medicine diagnostic science, [II] Pattern Identification. Seoul: Seongbosa. 2004 : 41.
5. The Grand Dictionary of Korean Medicine. Seoul : Jeong-Dam. 2001 : 1641.
6. Park KM, Choi SH. The comparative study of 『Sanghanron』 and 『hwangjenaegyong』 through historical study on 『Gangpyung-Sanghanron』 . J. Korean Medical Classics. 1995 ; 9 : 263-300.
7. Lee SI. A Philological Research on the Way of Medical Study of *ShangHanLun*.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Medicine Society For The Herbal Formula Study. 2014 ; 22(2) : 1-13.
8. Lim JE, Lee SJ. A case report form based on *Shanghanlun* six clinical patterns and provisions.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2013 ; 5(1) : 1-17.
9. Lee SI. Comparison of *Shanghanlun*. Seoul 1 : KMediACs publishing house. 2015 : 197.
10. The Dictionary of Korean Medicine. Seoul : SeongBo-Sa. 2001 : 208.
11. The Great Dictionary of Chinese. Seoul : Minjungseorim. 2002 : 1855.
12. Min KJ, Shin SH, Kang JI, Lee DH. A Study on Effectiveness of Socheongryong-tang for Allergic Rhinitis :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20 ; 33(4) : 74-99.
13. Lee YG, Kim JH. The clinical effect of Gagamsoscheongryong-tang on wind-cold type common cold of child. J Korean Oriental Pediatrics. 2004 ; 18(2) : 11-9.
14. Hwang WS, Chung KJ, Ju CY, Hong JP, Lee JS, Jung HJ, Rhee HK, Jung SK. The Clinical Effects of Socheongryong-tang in Asthmatic Patients. Korean J. Orient. Int. Med. 2002 ; 23(4) : 651-60.
15. Hwang WS, Lee JS, Choi JY, Jung HJ, Rhee HK, Jung SK. Two Cases of Chronic Sinusitis with Asthma Improved by Socheongryong-tang. J Korean Oriental Med.



- 2003 ; 24(1) : 207-12.
16. Kang NR, Tark MR, Ko WS, Yoon HJ. A Clinical Study about the Effect of Socheongryong-Tang on a Dyshidrotic Eczema Patient.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1 ; 24(1) : 192-9.
  17. Bae HB, Yoon HJ, Ko WS. A Clinical Study on Solar Urticaria Improved with Socheongryong-tang.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9 ; 32(3) : 262-8.
  18. Lee SJ, Kim NG. A Case Report of Dyshidrotic Eczema treated by Socheongryong-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2016 ; 8(1) : 41-51.
  19. Seo YH, Hwangbo M, Choi HY. A Case Report of Tinnitus Treated by Socheongryong-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2020 ; 12(1) : 71-8.
  20. Go SB, Kim DH, Kim SH, Park NC. Studies on ephedra decoction for clinical us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199 ; 7(2) : 361-83.
  21. Yun GY. Mahwang-tang and related herbal medicines. *J. of The Association for Neo Medicine*. 2000 ; 5(1) : 3-17.
  22. Kim SW, Kim KW, Lee BW. A Study on Combination of Prescription of *Shanghanlun* Using Database. *J Korean Med Classics*. 2019 ; 32(1) : 171-89.
  23. Yun HJ, Ha HY, Rho YB. A Case Report of Contact Dermatitis treated by Mahwang-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2016 ; 8(1) : 53-65.
  24. Seo YH, Wang IH, Hwangbo M, Choi HY. A Case Report of Edema Treated by Mahwang-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2019 ; 11(1) : 103-11.
  25. Kim YH, Kim IR. The characteristics of Geongangbuja-tang and related medicines. *Herbal formula science*. 1999 ; 7(1) : 49-54.
  26. Cho SH, Choi WY. Two Case Reports treated with Jeodang-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2019 ; 11(1) : 47-61.
  27. Cho SH. Case Report : Brain Fog Treated by Bekhogainsam-tang.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2020 ; 12(1) : 101-12.
  28. Park SG, Jo EH, Choi HG, Hong JE, Park MC. Clinical Differences between Baekho-tang and Baekhogainsam-tang through Skin Disease Case. *Herbal formula science*. 2019 ; 27(2) : 179-87.
  29. Kim JH. A Comparative Research of Eight Principle Pattern Identification - based on Zhang Jie-Bin, Cheng Guo-Peng, and Jiang Han-Tun -. *J. Oriental Medical Classics*. 2013 ; 26(2) : 47-59.
  30. Shin YI. The study of diagnose for Shanghan-Onbyeonghak. *J. Oriental Medical Classics*. 1999 ; 12(1) : 21-54.
  31. Ha YS. *The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origin*. Pusan. 3-Publication. 2014 : 876.
  32. Kim JA, Lee SJ. *Shanghanlun* Diagnostic System : Exploring Value as Narrative Medicine by Analyzing Cases.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 Sanghan-Geumgwe. 2014 ; 6(1) : 1-25.
33. Chi GY, Lee IS, Jeon SH, Kim JW. Proposal of Form-Color-Pulse-Symptom Diagnostic System for Enhancement of Diagnostic Rate of 8 Principle Pattern Identification - Focusing on Cold Heat Pattern Identification -. J Physiol & Pathol Korean Med. 2019 ; 33(3) : 163-8.
34. Yu JK, Yun CY. The study of principle of treatment in *Huangdineijing*.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2007 ; 16(2) : 25-41.
35. Seo JO, Kim SH. A study on classification system of differentiation according to eight principle for exogenous febrile disease and febrile diseas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1998 ; 6(2) : 351-81.
36. Kim SU, Lee HK, Jung HJ. Suggestions for writing the medical records based on the symptoms in *Sanghanron*(傷寒論). The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Diagnostics. 2014 ; 18(2) : 85-110.
37. Park MY, Lee MJ, Hwang MW. Development of Diagnostic Indicator for the Sasang Constitution Exterior-Interior Disease Based on Original Symptom. J Sasang Constitut Med. 2020 ; 32(4) : 65-85.
38. Jang ES, Baek YH, Park KH, Lee SW. Biological Change by Forest Healing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 preliminary study. J Sasang Constitut Med. 2012 ; 24(1) : 43-53.
39. Lee K. Philological Analysis of Shanghan Prescriptions from the Chinese Unearthed Documents. J Korean Med Classics. 2019 ; 32(3) : 17-29.
40. Shin YS, Jeong JK, Lee SI. An analysis of Clinical Studies on Mahwang-tang. Herbal Formula Science. 2019 ; 27(1) : 87-100.
41. James Morrison. DSM-5® Made Easy : The Clinician's Guide to Diagnosis(Korean ver.). Sigmappress seoul. 2016.